



스위스재보험, 혁신적 보험 솔루션이야 말로 증가하는 기후 위험 비용에 대한 지역사회 자금조달의 핵심이라고 최신 보고서에서 밝혀

Telephone +41 43 285 7171

Corporate Communications, New York
Telephone +1 212 317 5663

Corporate Communications, London
Telephone +44 20 7933 3445

Corporate Communications, Asia
Telephone +852 2582 3660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2010년 9월 20일 뉴욕 – 혁신적인 보험 솔루션은 개발도상국가들의 기후 변화 계획을 추진하고 높아져가는 기후 위험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지역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스위스재보험은 최신 보고서에서 밝혔다. 뉴욕시 기후 주간(Climate Week NY°C) 개막식에서 오늘 발표된 “기후 변화의 극복: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보험 솔루션(Weathering climate change: insurance solutions for more resilient communities)”은 지역사회가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대규모 자연 재해로부터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위험 전가 솔루션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최근 파키스탄의 파괴적인 홍수와 러시아의 가뭄에서 보았듯이 자연 재해와 극심한 기후 변화는 매년 수 많은 인명 피해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는 몇 년간의 개발 성과물을 한 번에 빼앗아가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연간 GDP의 최대 19 퍼센트에 이르는 비용을 유발해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비용효과적인 적응 수단은 잠재적 손실량의 상당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90%까지 완화 가능하다. 그러나 상당한 불확실성과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선택을 해야만 하는 의사결정자에게 있어 보험은 극심한 기상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스위스재보험의 재물 및 특종(Property & Specialty) 업무부문 책임자인 마티아스 웨버(Matthias Weber)는 “보험은 기후 관련 재해에 있어 효과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며, 보다 폭 넓은 기후 적응 전략의 일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성숙한 보험 시장이 없는 개발 도상국의 빈곤한 지역에 적절한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종종 힘든 일이다. 그러나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 이전은 그러한 상황에서 기후 위험과 대규모 자연 재해에 대한 보험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그 예가 스위스재보험이 지원하는 전통적인 보험과 자본 시장 도구들을 창의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다국적 위험 풀인 캐리비안 대재해 위험 보험 기금(Caribbean Catastrophe Risk Insurance Facility, CRF)이다. 허리케인과 지진이 발생한 경우 이 기금으로 캐리비안 16 개국 정부에 긴급 자금을 지원 한다.

이번 주, 뉴욕에서 발표한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Clinton Global Initiative)에 대한 2010년 스위스재보험의 약속은 에티오피아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스위스재보험은 옥스팜 아메리카(Oxfam America)와 콜럼비아 대학의 기후와 사회 국제 연구 기구(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limate and Society at Columbia University, IRI)와 같은 현지 파트너와 함께 노동력을 보험료 대신 제공하는 혁신적인 상품을 통해 가난한 농부에게 날씨 보험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기본적인 기술 지원을 하는 IRI는 개발 도상국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날씨 지수 보험 프로그램의 선구자 역할을 해 왔다. 2년 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현재 에티오피아 전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뉴욕시 기후 주간의 개막일에 스위스재보험과 기후 그룹(Climate Group)이 공동 후원한 개발도상국의 위험 이전과 적응에 대한 고위 패널 토론에서 발표된다.

뉴욕시 기후 주간의 창립 스폰서인 스위스재보험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의 최고 위험 관리자인 라지 싱(Raj Singh)은 “스위스재보험은 자사의 역량을 이용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지역 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는 재무 솔루션을 설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후 그룹(Climate Group)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스티브 하워드(Steve Howard)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스위스재보험이 2년 연속 뉴욕시 기후 주간을 지원해 주어 기쁘게 생각한다. 스위스재보험은 기후 변화가 글로벌 경제 전반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가 기후 변화의 결과에 적응하고 청정 산업 혁명을 위해 민간 부문의 자금 지원을 하는 데 있어 금융 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재조정하는가에 대한 모범 사례를 보여준다.”

보고서 전문보기

편집자 주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은 고도로 다각화된 선도적 글로벌 재보험사로 전세계 20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863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를, 무디스(Moody's)로부터 'A1'을,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A'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